

## 황석영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한계 고찰

김 은 경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 1. 서론

황석영의 『장길산』은 1974년부터 『한국일보』에 연재를 시작하여 1983년에서 1984년에 걸쳐 현암사에서 총 10권의 단행본으로 간행된 황석영의 대하역사소설이다.<sup>1)</sup> 대하장편소설의 등장은 197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의 소설 문단에서 가장 특이한 성과로 평가된다. 황석영의 『장길산』은 박경리의 『토지』, 이병주의 『지리산』, 김주영의 『객주』 등과 함께 1970년대에 오랜 발표 과정을 거쳐 완결된 작품이다.<sup>2)</sup> 조선 숙종조에 활약한 의적 장길산의 삶을 소재로 조선 후기 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형상화한 이 작품은 현대의 민중운동의 전사(前史)를 다룬 문제작으로 평가되며, 조선시대 민중들의 언

1)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 1096.

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pp. 332-333.

**주 제 어:** 혁명서사, 개혁세력, 비개혁세력, 현세적 이데올로기, 보수성, 종교적 이데올로기, 비현실성  
Narrative of Revolution, Reformativ Characters, Non-Reformativ Characters, Worldly Ideology, Religious Ideology, Conservativeness, Unreality

어와 풍속을 풍부하게 재현한 점, 왕조 중심의 역사소설과 달리 하층민 중심의 민중사로 당대 역사를 재구한 점, 봉건지배층의 관점에서 쓰인 사료들을 민중적인 시각에서 재해석한 점 등이 성과로서 인정된다. 이 작품은 또한 동일하게 의적의 삶을 다룬 일제강점기의 역사소설 홍명희의 『임꺽정』과 비교선상에서 논의되곤 하는데, 『임꺽정』에 비해 민중세력들이 확고한 미래전망을 지니고 반봉건적 변혁운동을 펼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기존 논의는 『장길산』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 평가 이외에 문제점 또한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정리한 마지막의 긍정적 평가 항목, 즉 장길산 혈당을 확고한 전망을 가진 혁명적 집단으로 묘사한 것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목된다.<sup>4)</sup> 배경이 되는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장길산 일당에게 지나치게 진보적인 의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입장이다. 한편, 양반과 상민(민중), 관과 민의 관계를 양극화하여 ‘계급적인 이분법의 세계분화’를 강조한 점이 『장길산』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sup>5)</sup>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여 논의를 전개코자 한다.

앞의 첫 번째 문제 제기에서 드러나듯이 『장길산』을 민중세력이 주체가 된 ‘혁명서사’로서 규정하는 것은 기존 논의의 일반적인 시각이다.<sup>6)</sup> 본고의 논의 역시 이러한 기존 논의에서 출발하되, 『장길산』이 ‘혁명서사’로서 갖는 한계점에 초점을 모으고자 한다.<sup>7)</sup> 이러한 본고의 논의 진행 방향은 기존

3) 강영주, 『歷史小說 『林巨正』과 『張吉山』』, 『상명대학교 논문집』, 1991, p. 141 ; 강영주, 『역사소설의 리얼리즘과 민중성』,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pp. 270-272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9, pp. 472-473.

4) 강영주, 『歷史小說 『林巨正』과 『張吉山』』, 앞의 논문집, pp. 145-146.

5)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pp. 475-475 ;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p. 399.

6) 강영주 이외 이재선, 신승희 등의 연구자가 ‘혁명’을 『장길산』의 주요한 국면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강영주, 『歷史小說 『林巨正』과 『張吉山』』, 앞의 논문집 ; 이재선, 앞의 책 ; 신승희, 『『장길산』론』, 『새국어교육』 70,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8.

논의에서 제기된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한 반론에서부터 비롯한다. 대하장편 역사소설은 그 장르적 특성상 많은 수의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에 의해 펼쳐지는 서사 전개 양상은 다채롭다. 장길산 혈당으로 묶이는 주동 인물군에 편중되지 않는 시각으로 『장길산』을 분석할 때, 이 작품에서의 역사 조망이 ‘계급적 이분법’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장길산』은 상층·중류·하층의 각 계급 내에서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sup>8)</sup> 즉, 『장길산』은 양반과 민중의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 의해 ‘혁명서사’를 전개하고 있다기보다, 각 계급 간 그리고 각 계급 내에서의 인물들의 상충하는 현실대응양상을 통해 복합적인 국면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에 주목할 때 기존 논의가 간과한 『장길산』의 특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고는 이를 『장길산』이 ‘혁명서사’로서 갖는 한계점으로 논의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본가계급이 주도한 서양 부르주아 혁명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다. 『장길산』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송상과 장길산 혈당이 주도하는 상단의 활약과 ‘활빈도’를 자처하면서 경제력 확보에 힘을

7) 본고의 이와 같은 입장이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의 성격 및 이데올로기에 주목하여, 이에서 드러나는 특질을 『장길산』이 ‘혁명서사’로서 갖는 한계점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혁명서사’는 계급 갈등과 그에 따른 정체(政體)의 변혁을 다룬 이야기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정의는 계급관계에 주목한 기존 논의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며, 계급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세계 혁명의 역사를 참조한 것이다. E. Hobsbawm, 『혁명의 시대』, 정도영·차명수 역, 한길사, 2002, pp. 233-267.

8) 이에 주목할 때, 개혁세력 대 비개혁세력의 구도 또한 이분법적 틀로 귀속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그런데 본고의 이와 같은 시각은 ‘계급적 이분법’에 따른 기존 논의가 간과한 측면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논의는 장길산 혈당을 중심으로 한 하층계급과 개혁세력, 그리고 상층 지배계급과 비개혁세력을 단선적으로 연결 짓고 있는 바, 이는 주동인물군과 반동인물간의 갈등에 의해 긴장감 있게 전개되는 서사의 한 측면만을 부각하는 결과를 낳는다. 『장길산』에서 중인 출신의 최형기와 최하층 모가비 출신의 고달근이 장길산 혈당의 직접적인 적대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이와 같은 기존 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두드러진 측면이다. 본고는 인물의 계급관계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하되,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 간의 갈등을 ‘계급적 이분법’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한계점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

기울이는 장길산 혈당의 행보 등은 자본가 계급이 주도한 부르주아 혁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본고가 서양 부르주아 혁명의 사례에 기대어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한계점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sup>9)</sup>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 진실성 추구의 문제를 논외로 하며, 민중 세력이 주체가 된 혁명을 통한 봉건질서의 타파와 새로운 국가의 건설이라는 작가의식에 중점을 둔 것이다.<sup>10)</sup>

## 2. 개혁세력·非개혁세력이 혼재하는 계층의 양면성

『장길산』은 봉건적인 조선사회를 배경으로 민중의식의 구현을 다룬 작품으로서 주목받아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혁명서사’라는 이 작품에 대한 규정은 일견 타당하다. 『장길산』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이 작품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 잣대로 지식인과 민중, 관과 민을 각각 규정하여 형상화하고 있다는 관점<sup>11)</sup>에서의 논의와 맥락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논의의 관점을 비켜나서 『장길산』을 볼 때, 단순한 이분법으로써 이 작품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입장을 통해 『장길산』에 내재하는 여러 층위로 분기된 의미망을 포착하여 이 작품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의 논의는 『장길산』을 미완에 그친 혹은 계속 진행 중인 ‘혁명서사’로서 규정 짓도록 이끌 것이다.

9) E. Hobsbawm, 『혁명의 시대』, 앞의 책. / 황석영 또한 대담을 통해 숙종조의 경제 상황—지방 향시와 대처 저자의 발생, 후기에 시작된 화폐의 통용, 대외무역의 주요 물품인 채취산삼의 인삼으로의 재배 전환, 화폐통용과 유관한 광산의 개발과 광공업의 발전, 이앙모식의 농사작법의 발전과 개간지의 확대 등등—을 근거로 이때에 민중의 자생적 근대화가 싹튼 것으로 보고 『장길산』을 집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황석영(대담), 「분단시대의 ‘통일작가’ 황석영」, 『사회평론』, 1991. 10, pp. 146-149.

10) 본고는 다음을 기본 자료로 한다. 황석영, 『장길산』 1~12, 창비, 2004.

11) 김윤식·정호웅, 앞의 책, pp. 475-476.

황석영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장길산』에는 귀족 사대부에서 중인층, 농민, 하층민과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이 3,000여 명 등장한다.<sup>12)</sup> 이처럼 다양한 군상의 인물들의 면면에 주목할 때, 이들을 단순히 상층과 하층, 지식인과 민중, 관과 민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이를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장길산』에 등장하는 인물의 계급을 크게 상층·중류·하층으로 구분하여 살필 때, 이 각각의 계급 내에서도 상이한 의식 성향과 삶의 방식을 취하는 인물의 유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인공 장길산과 우대용, 강선홍, 마감동, 오만석, 최홍복, 김선일 등 그의 혈당에 초점을 맞추어 하층 민중을 범주화할 경우, 지배계급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고 억압에 문힌 이들은 모두 개혁세력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에 비추어 전체 하층 민중을 개혁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이다. 세상을 등진 하층 민중들 가운데는 생존을 위해 남의 것을 강탈하는 생계형 도적이 존재한다. 단순한 약탈자로서 억압에서 도적질과 범법을 일삼다 장길산 혈당에 복속되거나, 그의 혈당에 의해 추방되는 구월산의 화적패 노가, 백운산의 변가, 달마산의 수돌이, 불타산의 심백이와 범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의를 품고 억압에 문힌 장길산 일당과 같은 ‘의적’<sup>13)</sup>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한편, 『장길산』에 등장하는 하층계급 가운데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여 신분상승을 꾀하는 인물이 상당수 있다. 이들의 경제력은 대부분 지배계급의 범법에 공조하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써서 획득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안성 사당패의 모가비 출신으로 물욕과 신분상승욕 때문에 동류를 배반하고 토포의 앞잡이가 되는 고달근을 들 수 있다. 한편, 내수사 노비 출

12) 황석영(대답), 앞의 글, p. 146.

13) 홉스봄은 의적을 농촌의 위법자들로서 군주와 국가에 의해 범죄자로 간주되지만 같은 편인 농촌 사회 내 사람들은 이들을 영웅, 수호자, 복수자, 정의의 투사 등으로, 심지어는 해방군으로까지 보는 존재인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또한 의적의 종류를 로빈 후드와 같은 고상한 도적, 원초적 저항군인 하이두크, 공포를 부르는 복수하는 자로 구분한다. E. Hobsbawm, 『밴디트』, 이수영 역, 민음사, 2004, p. 48, 52.

신으로 주인을 배반하여 경제적 기반을 잡은 후 자모전가를 하여 부가옹이 된 여침지, “강상의 무뢰배”<sup>14)</sup>로서 화수(和水)먹인 쌀을 팔아 재물을 모은 유치옥 일가, 서흥의 부자 조동지 등이 물력을 바탕으로 하층계급에서 신분 상승을 이룬 비개혁세력의 인물들이다. 또한, 호조판서 집안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강경의 상권을 잡은 원부자, 재령·신천의 원과 트고 지내면서 재물을 모은 우산포 소메골의 구부자, 맹산현감과 공모하여 참채잡이로 큰돈을 모은 유복령 등은 관이나 권력자와 결탁하여 부정한 재물을 모은 하층계급의 인물이다. 이밖에 주인의 권력을 등에 업고 같은 하층계급을 핍박하는 한양 대가댁 사노들 역시 같은 부류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이들은 동일한 하층계급 내에서 장길산 혈당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에 반하는 비개혁세력에 해당하는 인물들인 바, 이들에 대한 장길산 일당의 징치는 박진감있는 서사의 전개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장길산』의 하층계급 인물들 내에는 주동인물군인 장길산 혈당으로 대표되는 개혁세력 이외에 단순 생계형 도적들, 신분상승형 비개혁세력 등이 공존한다. 따라서 ‘하층계급=민중=개혁세력’의 도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겠다.

중류계급 역시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이 혼재하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장길산 토포에 대한 집념을 보임으로써, 『장길산』의 주요 갈등축을 담당하는 최형기는 파주 아전 집안의 후손이다. 중인이라는 계급적 한계를 극복하고 관직에 나아가 신분상승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공명심을 채우기 위해 장길산 혈당과 극렬하게 맞서는 최형기는 대표적인 비개혁세력의 인물이다. 한편, 장길산이 광대에서 활빈행의 기치를 내세운 녹림당으로 인생행로를 전환토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인물인 신복동 또한 중인 출신이다. 그 역시 관리와 결탁하여 축재한 후 양반의 족보를 사들여 신분상승을 이루는 수순을 밟은 비개혁세력의 인물이다. 신복동과 최형기는 서사의 발단과 절정에서 주요 갈등축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비개혁세력의 인물들로서 모두 중인계급에 속한다. 이밖에 『장길산』에는 관과 민중 사이에서 이해상관을

14) 황석영, 『장길산』 1~12, 창비, 2004, ③권, p. 122. / 이하 작품인용은 (권 : 면수)의 방식으로 내각주 표기한다.

따져 실리를 추구하는 아전배들이 상당수 등장한다.<sup>15)</sup> 다른 한편으로, 『장길산』에서 중인출신들은 개혁세력의 한 축을 이루는 ‘검계’<sup>16)</sup>의 주요 구성원으로 등장한다. 정원태, 모신이, 산지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양주 아전의 자손인 정원태는 일찍이 중인으로서 신분상승의 한계를 인식하고 출가하여 미륵신앙으로 검계를 이끄는 중심인물이 된다. 장물과주로서 많은 재산을 모은 모신은 “검계의 모사 놀음”(⑫권, 41)을 하는 인물이다. 중인의 서자로 태어난 산지니는 늙은 “시골 향반”(⑦권, 184)에 의해 강제로 보쌈을 당한 사촌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 그 양반을 죽이고 피신하던 중 검계의 일원이 된다. 그는 최형기에 의해 체포되는데, 검계의 존속을 위해 모신이의 안에 따라 자신의 본분을 다한 뒤 속참된다. 이밖에 장길산이 세상을 알기 위해 금강산에서 정진할 때, 강원도 고성에서 함께 염병의 퇴치에 앞장 선 전기수 출신의 최현경이 중인출신으로서 개혁세력에 포함되는 인물이다.

중·하층 계급을 모두 개혁세력으로 묶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반계급=비개혁세력’이라는 도식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조선 숙종조를 배경으로 한 『장길산』은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 계층이 중심을 이룬 지배계급의 전횡과 부패를 문제 삼는다. 그런데 장길산 혈당과 뜻을 같이하는 개혁세력 가운데에는 이러한 양반계급의 인물이 존재한다. 유서 깊은 양반가문 출신인 운부대사는 실학자 유형원과 교류를 나눈 바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는 불교계의 개혁세력을 이끄는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이

15) 다음의 인용은 이들 아전들의 생리를 잘 드러낸다. / **원래가 아전이란 같은 중인이면 서도 일반 백성들에게는 천시를 받는 업이었다. 그들은 뇌물에 약하고 권력에 아부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양반과 권세가에 대해 깊은 증오를 감추고 있기도 하였다.** 아전이 양심을 품으면 고을 원의 감투가 흔들린다는 말은 그들의 보복이 교묘하기 때문이다. (⑦권, 199)

16) 검계는 “**저자 장사치들과 범법하여 죄를 저지르고 피하다는 자들이나 무뢰배들이 결당한 계**”로서 “**한양 성내에 사는 벼슬아치나 권세가의 노속들이서로 맺은 당**”(⑩권, 143)인 살주계와 함께 『장길산』에서 주요한 민중 개혁세력의 조직으로 등장한다. 검계는 최형기에 의해 궤멸될 위기에 처하나, 명맥을 이어 운부스님을 수장으로 한 불교계, 승려 여환을 중심으로 한 미륵당, 그리고 장길산 혈당과 연계하여 역성혁명을 도모한다.

다. 선비 김기는 유명무실한 과거제도로 인해 환로에 나서지 못하고 가산을 모두 잃은 상태에서 장길산의 측근이 되어 그와 뜻을 같이 한다. 송상의 실력자로서 일찍부터 장길산의 인생행로에 영향을 미친 바 있으며, 그와 마지막까지 뜻을 같이 하는 박대근 역시 양반의 서자이다. 이 밖에 부패한 조정 에 나아가기보다 초야에 묻혀 살면서 “농사잡록”(④권, 37)과 같은 책을 편찬하여 농민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애쓰는 설유징이 양반계급의 개혁세력 인물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장길산』의 인물들은 각 계급 내에서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 이 작품이 양반과 민중, 관과 민을 선악의 이분법적 도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 장길산 혈당의 주요 인물들, 즉 장길산·우대용·김기·강선홍·이경순·김선일 등이 세상을 등지고 녹림당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길산은 관과 결탁하여 해주의 부가옹이 된 중인 신복동과의 대결을 계기로 사형수가 되고, 결국 녹림당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신복동은 경강 해운의 독점권을 갖기 위해 해주에서 해운업으로 일가를 이룬 임유학(幼學)을 치는데, 임유학의 수하였던 우대용은 이 일에 연루되어 사형수가 되며, 박대근의 도움으로 장길산과 함께 구출되어 장길산 혈당의 일원이 된다. 김기는 자모전가를 운영하는 여침지의 약탈로 가산을 모두 잃은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장길산 혈당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된다. 고향 장연지방의 혹독한 부역에 시달리던 강선홍은 형 인홍을 대신하여 역을 수행하던 중, 한양 세도가의 노비들과 충돌한 일을 계기로 관의 징벌을 받는다. 이때 그는 “충효 따위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고 소금장수 일로 생계를 잇던 건전한 “양민의 삶”(④권, 159)을 내던지고 녹림에 묻힌다. 이경순은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강상의 무뢰배”(③권, 122) 출신 유치옥 일가와와의 충돌로 인해 범하게 된 살인, 자신의 재산을 탐낸 유이방의 배반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장길산 혈당과 맥이 닿게 된다. 김선일은 관과 결탁하여 잠재의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모집한 잠채 광부들을 “사노들보다 더 비참”(⑤권, 286)하게 부리는 유복령과 대항하다, 결국 장길산에게 구출되어 그와 뜻을 같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장길산 혈당의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지배계급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보다는 그들과 결탁한 중·하층 계급과의 충돌로 인하여 세상을 등진 후,<sup>17)</sup> ‘활빈행’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뗏어지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장길산』의 인물들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양반과 민중의 계급적 이분법으로 분류하여 살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계급을 기준으로 한 이분법적 시각을 지양하고, 『장길산』의 인물들을 크게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혁명서사’로서의 이 작품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 양대 세력의 정치적·경제적 의식 상황과 그에 따른 삶의 양태를 분석함으로써, 『장길산』을 미완에 그친 혹은 진행 중인 ‘혁명서사’로서 성격 짓도록 하는 특질들을 논의할 것이다.

### 3. 非개혁세력의 ‘현세적 이데올로기’의 보수성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 홉스봄은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를 규정하는 통합적인 혁명으로서 규정한다. 홉스봄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세계가 ‘경제’에서의 산업혁명과 더불어 ‘정치와 이데올로기’에서의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이 양대 혁명을 이중혁명으로 규정한다.<sup>18)</sup> 근대 현실세계에서의 혁명에 대한 역사학적

17) 예외적으로 마감동과 최홍복은 양반 지배계급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것을 계기로 독립에 몰린다. 한양 교리대 사노의 아들이었던 마감동은 자신의 아내를 유린한 교리대 망나니 아들을 살해한 후 세상을 등지며, 춘천 태생의 최홍복은 환곡이라는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는 수령에게 항거하여 민변을 주동한 사건 때문에 자비령의 화적당이 된 후 장길산에 의해 포섭된다.

18) E. Hobsbawm, 『혁명의 시대』, 앞의 책 ; 김동택, 「이중혁명과 자본주의 세계의 형성-홉스봄과 ‘혁명의 시대」, 『혁명의 시대』, 앞의 책, p. 41, 48.

의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볼 때, 황석영의 『장길산』 또한 그 ‘혁명서사’로서의 성격을 정치적·경제적 국면에서 살필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갖추고 있다. 황석영이 한 대답에서 밝히고 있듯이, 『장길산』은 조선 숙종조의 현실을 다루면서도 영정조의 현실까지를 앞질러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장길산』에서 조선조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화상을 재현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sup>19)</sup> 아울러서 만민평등을 내세우는 미륵사상을 주요 개혁세력인 장길산 혈당, 운부대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검계 및 살주계의 정신적 토대로 제시함으로써 『장길산』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변혁을 주요 화두로 삼는다. 본 장에서는 개혁세력과 갈등관계를 통해 『장길산』을 떠받치는 한 축을 이루는 비개혁세력의 경제적·정치적 의식 성향 및 삶의 양상을 살피고, 이들이 노정하는 한계점을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계층 형성의 가능성을 논의하겠다.

『장길산』은 기본적으로 양반 사대부가 중심을 이루는 상층 지배계급을 타파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주동인물군인 개혁세력과 실제적으로 충돌하는 비개혁세력은 중·하층계급에 속한다. 이러한 계층의 양면성과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하였거니와, 『장길산』에서 비개혁세력의 인물들은 미륵신앙을 중심사상으로 하는 개혁세력 인물들에 비해 현세적인 의식 성향을 갖는다. 이들의 현세적 이데올로기는 우선, 경제력 획득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는 지방 향사와 대처의 저자가 발생하고,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진 숙종조의 경제적 상황을 활발한 상단 활동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자생적 근대화의 단면을 드러내고자 한<sup>20)</sup> 작가 황석영의 의도와 맞물리는 양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생적 근대화의 씨앗이 대하소설 『장길산』이 의도하는 혁명적 비약의 단계를 넘어서기까지에는 많은 한계점을 노정함을 밝힐 수 있다.

『장길산』의 제1부는 장길산이 광대로서의 삶을 접고 송도 박대근, 봉산

19) 이와 관련하여 기존논의는 『장길산』이 상인계층의 활약을 부각시키려고 한 나머지 반봉건투쟁의 실제적인 주체였던 농민의 존재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황석영(대답), 앞의 글, p. 146.

20) 황석영(대답), 앞의 글, pp. 146-149.

김기, 문화 이갑송, 해주 우대용, 한양 마감동, 안주 오만석, 장연 강선홍과 녹림당으로서 형제지의를 맺은 후, 세상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금강산에 입산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장길산이 세상을 등진 삶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은 신복동과의 충돌이다. 이들의 대립은 제1부 1장의 첫 절에서부터 시작된다. 재인말이 있는 문화 인근 장터의 무뢰배들과 대결하여 이름이 알려진 장길산은 송화의 무더리장터에서 지방관리 및 아전과 결탁하여 이익을 꾀하는 신복동의 수하들을 징치하는 한편, 지방 장시에 난전을 트러 다니는 송상 차인 박대근과 인연을 맺게 된다. 『장길산』의 도입부에 나타난 장길산과 신복동의 대결, 그리고 장길산과 박대근의 결속은 비개혁세력과 개혁세력의 성격을 구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복동과 박대근은 모두 부의 축적을 힘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력 증강 방식과 삶의 지향은 상이하다.

우선, 신복동을 매개로 비개혁세력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현실대응양상이 정치적 보수주의로 귀결되는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 『장길산』에서 비개혁세력의 경제력 상승은 대부분 지배계급의 범법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부 2장의 첫 절은 중인출신의 신복동이 대상부고로서, 그리고 족보를 사들인 양반으로서 일가를 이루기까지의 내력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복동은 관리와 결탁하여 국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고 공금을 횡령하거나, 관전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였음이 드러난다. 그는 해주의 해운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미 해운권을 쥐고 있는 임유학을 파멸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관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맺는다. 이처럼 사익을 꾀하기 위해 범법을 자행하는 벼슬아치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모은 신복동은 족보를 사들여 양반의 열에 끼어듬으로써 조선조의 봉건적 체제에 편승한다. 『장길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비개혁세력 인물들은 이와 같은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한 재물을 모으는 바, 이는 필연적으로 봉건적 신분질서를 추수하는 정치적 보수주의를 낳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길산』의 배경이 되는 시기의 신분질서 와해란, 신분의 매매를 통해 계급 이동이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의

타파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장길산』에 등장하는 비개혁세력 인물들은 대부분 지배층의 범법에 공모하여 정경유착을 통해 재물을 모은 후, 양반의 신분을 사는 수순을 밟는다.<sup>21)</sup> 따라서, 이들 비개혁세력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장길산』에는 탄탄한 경제력을 토대로 정치적 권리까지를 획득하여 서양 역사에서 ‘이중혁명’을 주도한, 부르주아 중류계급과 같은 신흥 계층형성의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중인계층은 주자학 이데올로기의 관념적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으로 무장하고 근대적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근대지향적 진보성을 담지한 계층이었다. 정호응은 우리 역사소설이 이러한 중인계층을 주로 사육에 간혀 대의를 저버리는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 계층의 역사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sup>22)</sup>

『장길산』은 또한 주동인물군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비개혁세력의 대표적 인물로 중인계층을 설정하고 있다. 『장길산』에서 현세적 이데올로기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인 출신의 인물로 최형기가 주목된다. 그는 조선조의 지배계급에 충성함으로써 입신출세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지배층의 범법에 공모하여 재물을 모으고 상층계급에 합류한 신복동과 차별화된다. 아전의 아들인 최형기는 “시골 아전이 얼마나 하찮은 직임인가”(⑦권, 262)를 깨달은 이후, 중인계급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분 상승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검술을 연마하여 출중한 무예실력을 갖추며 지배계층과 연줄을 대기 위해 일부러 기인 행세를 하는 등, 한미한

21) 이와 관련하여 2장의 계층의 양면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 있다. 신복동 이외 최하층 사당패 모가비 출신으로 관과 협력하여 장길산 토포에 앞장섬으로써, 토포의 상급으로 부가옹이 되고 선달직을 사들인 고달근을 이와 같은 비개혁세력의 대표적 인물로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내수사 노비 출신으로 주인을 배반하여 경제적 기반을 잡은 후 자모전가를 하여 부가옹이 된 여첨지, 화수(和水)머인 쌀을 팔아 재물을 모은 유치옥 일가, 서흥의 부자 조동지 등 장길산 혈당의 정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 부류에 속한다.

22) 정호응, 「한국 역사소설과 중인계층」, 『동서문학』, 2004. 봄, pp. 358-359.

시골 아전의 아들로서는 넘보기 어려운 관직 진출에의 욕망을 실현코자 노력한다. 이처럼 조선조 지배계급의 질서 내에서 입신출세하고자 한 최형기는 장길산을 토포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한다. 최형기는 현 체제 내에서 그 체제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무리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입신출세욕과功名심을 만족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세적이며 보수적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의식 성향은 내세적인 미륵신앙이 기저를 이룬 장길산 혈당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최형기는 관직 진출에의 꿈이 좌절되었을 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경제적 부의 축적에 둔다. 그는 “당왜화의 매매 거간”(⑨권, 69)으로서 많은 돈을 모으는데, 그의 이러한 경제력 증강 역시 “무장”으로서 “언젠가 권토중래(捲土重來)”(⑨권, 67-68)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의 경제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요즈음 세월이 재물 또한 권력에 못지않아 부가용은 어느 때든지 높은 공명을 따낼 수가 있”(⑨권, 70)다는 데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최형기는 단순히 재물의 축적을 통해 신분상승의 수순을 밟는 다른 비개혁세력 인물들과 구별되게, 권력에 대한 욕망과功名심을 두드러지게 갖는다. 중인출신인 최형기는 자신의 칼에 맞아 숨을 거둔 마감동이 지적하듯이, 자신과 동류인 “수령 방백 토호들에 시달리고 천대받으며 살아온 사람들”(⑦권, 138)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을 핍박함으로써 조그마한 가능성을 붙잡고 지배계층에 오르코자 한다. 따라서 다른 비개혁세력 인물들이 장길산 혈당의 징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그는 대결의 대상이 된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형기에게 있어 장길산 혈당의 대의를 건 반국가적 활약은 “전혀 상상이 닿질 않는 전인미답의 세계”(⑨권, 255)이다. 여기에서 최형기의 의식 성향의 견고한 보수성을 읽을 수 있다.

이상으로, 중인계급에 속한 신복동과 최형기를 중심으로 비개혁세력의 현세적 이데올로기의 보수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서 『장길산』에 등장하는 비개혁세력 인물의 경제력 증강의 문제를 정치경제적으로 근대세계를 연 버팀목이 되었던 부르주아 계층 형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봉건왕조로부터 근대세계로 진입하는 여명기를 다룬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한계점을 조명할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계층 형성 가능성의 문제로 집약된다. 지배계급과의 범법적인 공모를 통해 경제력을 획득한 비개혁세력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장길산』에서 새로운 계층 형성의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박대근, 이경순 등의 개혁세력 인물을 통해 이의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드러난다. 양반의 서자로 태어난 박대근은 일찍부터 자신이 상층계층의 이단아일 수밖에 없다는 신분상의 한계를 깨닫는다. 그는 “물력은 힘”(②권, 308)이라는 인식 하에 송상의 차인에서 시작하여 막대한 재산을 가진 송상 배대인의 사위가 된다. 그는 송상 임방 좌장의 중임을 맡기도 하며, 해외무역을 통해 “나라 밖의 상권”(⑥권, 148)까지를 잡을 원대한 포부를 갖는다. 박대근은 자신의 물력을 지배계급의 체제에 편승하여 신분상 승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복동, 최형기 등과 차별화된다. 그는 오히려 장길산의 무리가 대의를 가진 의적의 혈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끌며, 그들과 마지막까지 뜻을 같이하는 개혁세력의 편에 선다. 한편, 상민 이경순 또한 “신량역천(身良役賤)의 도장(陶匠)”으로서 “사분원(私分院)”을 운영하여 여주의 “부상”(③권, 94)이 되지만, 양반계급으로의 신분상승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sup>23)</sup> 새로운 계층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 또한 장길산 혈당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이 갖는 한계점으로 인해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치고 있다.

#### 4. 개혁세력의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비현실성

계층의 양면성에 대한 2장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장길산』에서 개

23) 다음은 공명첩 양반이 될 것을 권고하는 아내에 말에 거절의 뜻을 표하는 이경순의 대화이다. “내가 도장 출신으로 무과도 안한 터에 공명첩이나 사서 선달을 탄다는 것은 이 나이에 당치 않은 일이야. 비록 벼슬은 없으나 재물이 약간 있으니 양인으로 서 분수에 맞는 일ियो, 남에게 책잡힐 일을 저지른 적도 없으니 공명한 능멸은 당하지 않아요. 신분을 고치기 위해 족보를 사는 장사치들이 많건마는, 제 조상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근원 없는 자를 만드는 짓일세. (…)” (③권, 193)

혁세력은 하층계급뿐만 아니라, 중류 및 상층 계급에 걸쳐서 두루 포진하여 있다. 본고는 장길산 혈당을 중심으로 『장길산』의 민중 혁명서사로서의 성격을 논의하던 기존 논의와 시각을 달리하여, 이 작품에 나타나는 개혁세력을 다각도에서 조명하여 그 한계점을 논의코자 한다.

『장길산』에 등장하는 개혁세력은 녹림에 근거지를 두고 ‘활빈행’의 대의 실현을 위해 활약하는 장길산 혈당, 운부스님을 중심으로 한 풍열, 옥여, 여환, 묘정 등의 불교계, 저자의 장사치들과 무뢰배들로 구성된 검계 및 한양 성내의 벼슬아치나 권세가의 노속들이 맺은 살주계의 세 부류이다. 이들 개혁세력은 공통적으로 “차별없는 상생의 도”(⑩권, 298)가 실현되는 세계의 도래를 염원하는 미륵신앙을 정신적 지주로 한다. 『장길산』에 혁명서사로서의 성격을 질게 부여하는 ‘역모’는 이들 개혁세력들에 의해 제4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된다. 첫 번째 역모는 세속과 분리된 불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비승비속을 자처”(⑩권, 66)하면서, 미륵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변혁에 나선 사노 출신의 승려 여환을 중심으로 시도된다. 그는 양주에서 교세를 확장한 미륵교도와 최형기의 토포 이후 잔존세력으로 남은 검계의 구성원들을 결속하여 역모를 시도하나 시작단계에서 실패한다. 두 번째 역모는 『장길산』의 결말 부분에서 불교계 개혁세력의 수장인 운부를 중심으로 시도되나, 계획단계에서 좌절된다. 장길산 혈당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시도된 역모와 관련을 맺지만, 이에 참여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이는 불교계가 주도한 역모의 실천방식 및 방향설정에 대해 장길산 혈당이 입장을 달리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장길산 혈당의 시선을 통해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개혁세력의 문제점이 일정 부분 드러나는 바, 이에 주목하여 역모실패 및 좌절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혁세력의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여환스님 주도의 첫 번째 역모는 “미륵도라는 과육(果肉)을 검계라는 중핵(中核) 위에 거죽을 싣는 격식”(⑩권, 325)을 갖추어서 시도된다. 그런데, 검계와 미륵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개혁세력의 한계는 검계의 근거지라 할 수 있는 솔부리골의 주요 구성원인 고달근과 황희의 태도를 통

해 잘 드러난다. 안성 사당패의 모가비 출신인 고달근과 양주의 재인 출신인 황회는 모두 최하층 민중이다. 이들은 당진의 부호 유치옥 집안의 가산을 약탈한 이후, 떠돌이로서의 삶을 접고 세상을 등진 무리가 마을을 이루고 사는 솔부리골의 일원이 되어 그곳의 지도자격인 정원태의 영향으로 검계원이 된다. 그런데 검계에 몸을 담은 이들의 추후 삶의 향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실리에 밝고 정이 없는 고달근이 개혁세력의 배반자로서 『장길산』에서 주요 반동인물군에 자리하는 것과 달리, 황회는 미륵신앙에 깊이 빠져들어 여환이 주도한 역모에 가담하여 처형된다. 첫 번째 역모의 주도자격인 김시동은 이러한 고달근과 황회의 태도 차이를 “고거사는 너무 저자의 속리를 밝히고 황거사께서는 이제 구름 속으로만 다니려 하니 우리 검계는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우.”(⑩권, 320)라는 말로 진단한다. 이는 여환이 이끈 첫 번째 역모의 성격 및 한계점을 잘 드러낸다.

고달근과 황회의 극단적인 태도 차이는 검계와 미륵당의 결속이 ‘과육(果肉)’과 ‘중핵(中核)’의 관계처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 미륵당은 ‘반정’이 아닌 ‘입국(立國)’을 통해 정치적 개혁을 이룩하는 것을 역모의 목표로 삼는다. 만민이 평등한 “도솔타천(兜率陀天)의 용화세계”(⑩권, 141-142)의 실현을 위한 이 역모의 시도는 미륵신앙이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현실화를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변혁을 추동할 수 있는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이의 현실화를 위한 미륵당의 실천 자체는 다분히 비현실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김시동이 지적하였듯이, 미륵당은 소위 “구름 속으로만 다니려” 하는 초월적 방식으로 역모에 접근한다. 미륵당의 이른바 무진입국설이나 대우천변설은 그들이 주도한 혁명의 비현실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무진입국설은 “무진년에 양반은 상사람이 되고 천민은 양반 된다”(⑩권, 29)고 하는 예언에 기초한 맹목적 믿음이며, 이러한 맹신은 천변대우설과 관련을 맺는다. 여환은 초현실적 종교적 믿음에 의존하여 민심을 모으기 위해 미륵당의 역모와 “천변이 일어나 큰 폭우”(⑩권, 47-48)가 내리는 기상현상을 관련짓는 천변대우설을 유포한다. 결국 역모의 실행을 앞두고 예상

하지 못한 폭우가 내려 민심이 동요하게 되자, 여환은 무리하게 역모의 실행일자를 변경한다. 그 결과 여환의 미륵당과 검계가 주도한 역모는 장길산 혈당, 오계준이 이끄는 무계, 운부대사의 지시를 받아 대성법주가 이끄는 승병의 외응을 받지 못한 가운데 그 시작단계에서 실패한다.

“대저 이런 일에 과욕은 금물이올시다. 나도 대성법주에게서 들어 알았으나, 신서라든가 천변대우의 낭자한 유언은 너무 지나쳤지요. 그런 방법으로 동원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백성을 속여서는 오래 못갑니다. 차라리 양 주목을 들이치고 양곡 나누어먹는 일부터 시작했더라면 기찰은 빨리 시작 되겠지만 널리 호응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나저나 이제 어찌시렵니까. 여환당과 황거사는 파주와의 연계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⑩권, 114)

위의 인용은 미륵당과 검계 주도의 역모에 외응하지 않았던 장길산이 분석한 역모 실패의 원인이다. 장길산이 지적하듯이, 초월적인 믿음에 의존하여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역모를 실행한 것이 그 실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역모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개혁세력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장길산은 백성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보다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장길산 혈당이 주요 실천 강령으로 내세운 ‘활빈행’은 이와 같은 신념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활빈행은 조정의 무능과 전횡, 그리고 연이은 흉년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구제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역모의 ‘중핵(中核)’을 담당한 것으로 제시된 검계는 어떠한가? 미륵신앙을 가진 승려 정원태를 지도자격으로 하는 검계 역시 “조정을 뒤엎고, 도솔타천(兜率陀天)의 용화세계”(⑩권, 142)를 이루겠다는 정치적 변혁의 뜻을 품고 역모에 응한다. 그런데 검계의 한계 역시 역모에 앞서 이루어진 개혁세력들의 회합<sup>25)</sup>에서 장길산과 김기에 의해 지적된다.

24) 이재선은 혁명의 실패 원인으로 내부적 배신과 수행의 비현실성을 들고 있다. 이재선, 앞의 책, p. 395.

활빈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길산은 검계가 한양성내의 부잣집을 약탈한 후 빈한한 백성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묻지만, 검계의 조직이 강고하지 못하며 ‘검계의 모사 놀음’을 하는 장물와주 모신이가 등 검계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실정이라는 대답을 듣는다. 이어서 김기에 의해 검계가 백성들의 “공분을 모으는 것에 게을리”한 한계가 지적된다. 김기는 “백성들의 도와 덕이 무엇보다도 그 생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의 살아가려는 생업과 이익에 해를 끼친 제도나 관부에 타격을 주어, 도와 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개혁세력의 행동방향을 제시한다. 그 역시 “정(政)”의 의미를 백성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일에 함께 해주는 것”(⑩권, 149-150)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새로운 세계로의 변혁을 이루기 위해 장길산 혈당이 지향하는 바가 보다 분명해진다. 그들은 정치적 변혁에 앞서 백성들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일, 즉 경제적 현실에 보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길산 혈당의 개혁노선은 여환의 미륵당 및 검계의 개혁세력으로서의 한계와 그들이 주도한 역모의 실패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미륵당과 검계는 모두 역모를 통해 조정을 뒤엎음으로써 미륵신앙의 이상세계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들은 보다 시급한 현실적인 토대 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초월적인 신앙에 기대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도술타친 용화세계’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미륵당의 비전은 “유토피야에 대한 종교적인 몽상”<sup>26)</sup>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검계는 현실 이탈자들의 마을인 솔부리골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장물을 취급하는 경

25) 이는 구월산에서 이루어진 ‘오진암의 회합’으로 풍열스님, 여환, 우대용, 이경순, 박대근, 장길산, 김기, 강선홍, 이갑송, 설유정, 묘정, 오계준 등이 참여하여 살주계와 검계, 그리고 구월산 토포 이후 개혁세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때 첫 번째 역모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26) 이재선, 앞의 책, pp. 395-396. / 홉스봄에 따르면, 부르주아 혁명을 이끈 이데올로기는 비종교적이고 현세적인 성격을 띤다. 그는 그러한 현세적 이데올로기로서 진보적 세계관으로서의 계몽주의 사상, 공리주의 등을 거론하고 있다. E. Hobsbawm, 『혁명의 시대』, 앞의 책, pp. 437-439.

제활동을 통해 재부를 축적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인다. 검계의 주요 인물인 모신이가 “서강뿐 아니라 칠패와 배오개 애오개 등지의 난전꾼들 사이에서도 가장 으뜸의 재산을 가진 자”(⑫권, 41)라고 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장길산의 지적에 의해 드러나듯이, 이들은 개인적 이익 추구에 머무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는 “한번도 자신의 이해를 떠나 위험을 자초하는 짓”(⑫권, 5)은 하지 않는 고달근의 배반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여환의 미륵당과 검계가 결속하여 시도된 첫 번째 역모는 황회가 대변하는 종교적 이상의 비현실적 추구라는 한계와 고달근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시사하는 현실적 토대의 중요성에 대한 간과라는 한계를 노정하면서 그 시작단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부대사가 주축이 된 불교계의 두 번째 역모가 그 계획단계에서 좌절한 것 또한 장길산 혈당의 개혁노선과의 대비를 통해 그 한계점과 원인이 드러난다. 운부는 일찍이 미륵신앙을 토대로 “극락을 현세화”(④권, 95-96)하겠다는 뜻을 품고 풍열, 옥여, 묘정, 대성법주, 여환 등의 불교계의 개혁세력을 규합한다. 세상공부를 하기 위해 금강산에 입산한 장길산의 스승이기도 한 그는 장길산 혈당과도 개혁세력으로서 연결된다. 이러한 운부대사가 주축이 된 두 번째 역모는 『장길산』의 결말부분에서 짧게 다루어지는데, 이 두 번째 역모 계획에도 장길산을 동참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운부가 중심이 된 역모를 통한 개혁의 방향이 장길산 혈당의 개혁노선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역모의 계획 또한 미륵사상을 바탕으로 하되, “정진인(鄭真人)에 대한 믿음”(④권, 95)을 뚜렷이 드러내 보인다. 장길산이 운부의 제자인 풍열스님을 찾아 불교계의 거병계획을 묻자, 풍열은 “올해부터 시작이나라. 위로는 이미 삼변의 징험을 보이신 진인을 받들었고, 세상은 마야흐로 말법(末法)의 시대이다. 산천을 보더라도 국맥(國脈)이 이미 진하였다.(…)”(⑫권, 241)라고 답한다. 이러한 풍열의 대답은 운부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 개혁세력의 성격이 역시 종교적 신앙의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잘 드러낸다. 특히, 진인에 대한 믿음은 미래에 도래할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미륵신앙의 천년

지복설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세적 이데올로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운부대사 계열의 개혁세력은 이러한 정진인설에 부응하여 설유징과 최현경의 보살핌 하에 9세의 소년을 진인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이들 개혁세력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재산과 신분의 구별이 없는 대동세상은 가장 천한 것에서 찾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대체 진인이란 무엇입니까? 진인은 따로이 있는 게 아니라 역병에 쓰러져가는 팔도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 환호하며 춤추는 세상에서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가 진인이지요. 차라리 왕후장상의 씨를 새로이 만들 바에는 북관의 곳곳마다 널려 있는 무인지경으로 들어가 우리끼리 용화세상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낫겠지요.”(⑫권, 282-283)

위의 인용은 진인의 도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여 역모를 도모하는 운부대사 계열의 개혁세력에 대해 장길산이 비판하는 내용이다. 장길산에 따르면, “진인”을 키우는 것은 “왕후장상의 씨”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만민평등을 내세우는 미륵사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진인”이 곧 “팔도의 백성”이라고 보는 장길산의 시각은 봉건왕조의 정치체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진보성을 내포한다.

정진인설에 기초한 운부의 역모를 통한 ‘입국’이란 ‘진인’을 궁궐에 좌정시킨 후에, 그를 보필할 조정 대신들을 교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봉건왕조 체제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를 위해 운부는 “조정의 실정과 벼슬아치들의 동향”을 잘 아는 선비들을 역모에 끌어들이며, 그들로 하여금 “한양 성내에 서열, 노비, 중인들의 힘을 규합하는 일”(⑫권, 282)을 도모하도록 한다. 백성이 곧 진인이라고 본 장길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역모 계획은 봉건왕조 체제를 답습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행방식에 있어서도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장길산은 운부의 역모 실행방식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식인들의 참여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인들이 노리는 것은 “정병을 장악하는 일”과 “정사에 참석하는 자리”이지, “용화세상”(⑫권, 282)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여기에서도 장길산

이 지향하는 현실개혁의 방안에서 정치적 접근이 우선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저희 활빈도는 참활빈하려면 땅을 모두 떼앗아 갈아먹는 이에게 고루 나누어주어야만 합니다. 그 일이 근본이요, 겨우 양곡이나 재물 등속을 떼앗아 나누어주고 지방 수령들이나 징치하는 것은 지엽말단이올시다. 근본이 서지 않는다면 집정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저희 활빈도가 백성의 군사임을 알고, 참용화세상을 이루는 일을 끊임없이 벌이고 다닐 것입니다.”(⑫권, 283)

장길산은 첫 번째 역모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문제가 개혁의 일차적 과제인 것으로 제시한다. 토지를 그것의 경작자에게 모두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장길산의 개혁노선은 역사소설 『장길산』이 현대의 전사로서의 진보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sup>27)</sup> 이처럼 백성을 주체로 보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혁을 우선시하는 장길산 혈당의 개혁노선은 역모를 실천하거나, 역모를 계획한 다른 개혁세력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양각시키고 있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장길산 혈당은 역모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그 개혁노선에 있어서 다른 개혁세력들에 비해 현실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서도 주목하듯이 『장길산』을 혁명서사로 볼 때, 이러한 시각에 가장 부응하는 개혁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는 장길산 혈당 또한 그들의 개혁노선을 실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고 본다. 3장에서 살핀 비개혁세력 인물들이 지배계급의 범법과 공모하여 그들의 세력을 키운 것이라면, 장길산 혈당의 활빈도로서의 활약은 주로 ‘지배계급의 범법과 부패를 겨냥한 범법적 저항’의 양상을 띤다. 장길산 혈당이 비개혁세력을 징치하는 방식, 지하경제의 특성을 보이는 그들의 경제력 증강 방식 등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7) 김동택, 「이중혁명과 자본주의 세계의 형성-흡수분과 ‘혁명의 시대」, 『혁명의 시대』, 앞의 책, p. 51.

미륵당과 검계 주도의 역모가 실패한 이후 장길산 혈당은 경제력 신장에 주력하여 장길산 상단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들은 “명화적당에서 자신의 산물을 지어내는 무리”(⑪권, 274)로 바뀐다. 그런데 장길산 상단의 재부 축적은 주로 잠무역, 잠채업, 사주전 제작 등의 범법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sup>28)</sup> 이는 장길산 혈당의 ‘비승비속’적 삶의 입지가 갖는 한계이며, ‘의적’이 주동인물군으로 등장하는 역사소설의 특성이기도 하다.

## 5. 결론

본고는 『장길산』이 혁명서사로서 갖는 한계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논의는 이 작품이 지배층과 민중, 관과 민의 이분법에 입각하여 계층적 양극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한편, 장길산 혈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세력에 초점을 맞추어 『장길산』의 민중 혁명서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장길산』의 대하장편역사소설로서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주동인물군에 편중되지 않는 시각으로 다수의 인물들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계층적 이분법에 따른 인물 성격화라는 기존 논의의 입장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장길산』에 등장하는 상층·중류·하층 계급의 인물들에 주목할 때, 각 계층 내 인물들의 의식 성향 및 삶의 방식을 상층과 하층, 관과 민의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정형화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장길산』의 거대 서사는 각 계층 내에 개혁세력과 비개혁세력이 혼재하는 가운데, 복잡다기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 2장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 본고는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장길산』의 인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혁명서사로서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장길산』에서 개혁세력과 갈등축을 형성함으로써 주요 인물군

28)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도 경제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계층 형성의 가능성을 읽기 어렵다.

으로 등장하는 중·하층 계급에 속하는 비개혁세력 인물들의 삶의 방식과 의식 성향을 조명해 보았다. 경제력 증강을 통해 조선 숙종조의 현실체제에 날렵하게 적응하는 비개혁세력 인물들의 삶을 추동하는 이데올로기는 다분히 현세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지배계급의 부패와 범법에 공모하여 경제력을 획득한 이후 공명첩, 권분 등의 방식으로 상층계급으로의 신분상승을 꾀한다. 이를 통해 조선 숙종조의 신분질서 와해란 신분질서 타파와 무관하며, 이들 비개혁세력의 보수성이 신분의 매매를 통한 신분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길산』에는 서양의 부르주아 혁명을 주도하였던 자본가 계급과 같은 새로운 계층 형성의 가능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장길산 혈당을 중심으로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성격을 거론하던 기존 연구의 시각을 탈피하여, 개혁세력을 장길산 혈당 이외 불교계, 검계의 세 부류로 범주화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장길산 혈당의 개혁노선에 비추어 두 번에 걸쳐 시도되거나 계획된 역모의 실패 및 좌절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장길산』의 혁명서사로서의 한계를 밝혔다. 여환의 미륵당과 검계가 주도한 첫 번째 역모의 경우, 미륵사상을 토대로 만민평등의 용화세계를 구현코자 한 역모의 목적 자체는 진보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그 실행방식에 있어서 무진입국설, 천변대우설 등을 내세움으로써 종교적 이데올로기의 비현실성을 노정한다. 역모에 동참한 검계 또한 범법적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백성의 공분을 모을 수 있는 현세적 이데올로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 역모 실패의 원인이 된다. 운부를 비롯한 불교계의 개혁세력에 의해 계획된 두 번째 역모는 정진인설에 기초하여 천년지복적 성격을 띠므로써, 첫 번째 역모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초월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들은 진인을 내세움으로써, 봉건왕조체제를 혁파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차원에서 역모를 통한 입국을 계획한다. 따라서 역모의 실천방안 또한 백성을 주체로 한 것이 아니라 진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봉건체제의 건설을 위해 지식인을 끌어들이므로써 변혁을 위한 현실적 토대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장길산 혈당은 두 번의 역모와 관련을 맺지만,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두 번의 역모를 주도한 개혁세력의 노선과 장길산 혈당의 노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장길산 혈당의 개혁노선 또한 만민평등의 용화세계 건설이라는 미륵사상을 기저로 하되, 역모 실패의 원인 및 한계점을 분석하는 장길산의 시각에서 드러나듯이 그들은 백성을 주체로 하여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제적 토대 마련에 비중을 둔다. 이는 불교계와 검계가 미륵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정치적 접근을 시도한 것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장길산 혈당 역시 지배층의 부패와 범법에 대해 범법으로 저항하며 지하경제활동으로 경제력 증강을 꾀함으로써, 비승비속의 삶의 입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황석영, 『장길산』 1~12, 창비, 2004.

### 2. 연구논저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권영민 편,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9.

강영주, 「역사소설의 리얼리즘과 민중성」, 『한국근대 역사소설의 재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_\_\_\_\_, 「歷史小說 『林巨正』과 『張吉山』」, 『상명대학교 논문집』, 1991.

김동택, 「이중혁명과 자본주의 세계의 형성-흠스봄과 ‘혁명의 시대」」, 『혁명의 시대』, 정도영·차명수 역, 한길사, 2002.

신승희, 「『장길산』론」, 『새국어교육』 70, 한국국어교육학회, 2005. 8.

신형기, 「민중 이야기와 도덕의 정치학- 『장길산』다시 읽기」, 『문학·판』 14, 2005. 봄.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정호웅, 「한국 역사소설과 증인계층—『憂國의 바다』와 『먼동』을 중심으로」, 『동서문학』, 2004. 봄.

최원식, 「남한 진보운동의 집단적 초상- 『장길산』 소론」, 황석영 『장길산』 해설, 창작과비평사, 1995.

최원식·임홍배 편,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2003.

황석영(대답), 「분단시대의 ‘통일작가’ 황석영」, 『사회평론』, 1991. 10.

Hobsbawm, E., 『혁명의 시대』, 정도영 · 차명수 역, 한길사, 2002.

Hobsbawm, E., 『밴디트』, 이수영 역, 민음사, 2004.

원고 접수일: 2009년 3월 28일

심사 완료일: 2009년 5월 6일

계재 확정일: 2009년 5월 27일

ABSTRACT

---

A Study on the Limitations as ‘Narrative of Revolution’  
of Hwang, Seok-Young’s *Jang Gil San*

Kim, Eun-Kyung

This essay aims to investigate the Limitations as ‘Narrative of Revolution’ of Hwang, Seok-Young’s *Jang Gil San*. Earlier Studies assert the characters of *Jang Gil San* are characterized by class dichotomy of the nobility and the people. This essay finds that reformative characters coexist with non-reformative characters in each class of the upper, the middle, the lower. This finding on the ambilaterality of classes is different from the assertion of earlier studies. This essay pay attention to the way of living and the inclination of consciousness of the reformative characters and the non-reformative characters, so that this essay find the limitations as ‘Narrative of Revolution’ of *Jang Gil San*. This point of view is different form the earlier studies focusing on the band of Jang Gil San.

The antagonists of *Jang Gil San* are comprised the non-reformative characters of the middle class and the lower class. They heap up riches by conspiring with illegal act of the ruling class, and then raise their social position to the upper class by buying the ‘Yangban’—the upper social status of Joseon. The way of living of the non-reformative characters like this shows the Conservativeness of their Worldly Ideology following the

reality of the age of SukJong collapsed the order of social status. They do not try to form a new class based on their riches like the Bourgeoisie leading the Revolution in the west. On the Contrary, The ideology of the reformative characters are religious. The reformative characters a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f the Jang Gil San band, Buddhists and ‘Gumgae’. The idea supporting these three groups spiritually is the faith of ‘Mireuk(彌勒)’. This essay discuss on the Treasons(逆謀) led by the Buddhists and the ‘Gumgae’ comparing with Reformation Platform of Jang Gil San. The Treasons attempted twice aims to actualize the Idea of ‘Mireuk(彌勒)’ which pursues the Utopia realized the equality of all the People. So, the aim of the Treasons is progressive. But The Treasons raise limitations that depend on the religious transcendence and pass over the importance of realistic foundation in the ways of execution. These limitations are presen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Jang Gil San’s band. The Reformation Platform of Jang Gil San is also based on the Idea of ‘Mireuk(彌勒)’. But they focus on the Economic Foundation and consider the people as subject of revolution. These policy lines of Jang Gil San are more progressive than the lines of Buddhists and the ‘Gumgae’. The band of Jang Gil San act out the policy in the borderland between mundane world and unworldliness. They resist the corruption and illegality of the ruling by the illegality. Accordingly, they also have limitations which could not overcome the position of ‘the boundary men[非僧非俗]’ and form a new social stratum.